박종훈의 지식한방 · Fanding @kpunch

Part 1 — 돈의 종말

두 가지 위험한 착각으로 시작합니다

· 정리 2026-05-12

두 가지 위험한 착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40년간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2022년에 발생했던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과거처럼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 40년의 저물가는 세계화라는 특수한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 중국에서 저렴하게 상품을 생산하고 아프리카·남미에서 자원을 손쉽게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고, 세계 경제는 자국 이익 중심의 블록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만큼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고령화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통념입니다. 일본이 고령화로 디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령화 = 디플레이션' 공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G2 경제 대국이었고 엔화는 국제 통화였습니다. **한국은 G2에 오른 적 없고 원화는 국제 통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았습니다.** 일본조차 지난 30년간 통화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다 고령화 가속과 함께 엔화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플레이션은 맥박처럼 뜁니다

인플레이션은 결코 일정한 비율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치 맥박이 뛰는 것처럼 주기적인 등락을 반복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잡고, 물가가 잠시 안정된 사이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시 경기 부양으로 통화를 공급하며, 그 결과 다시 물가가 폭등합니다. 이 지그재그가 사람들에게 "물가가 잡혔다"는 착각을 줍니다.

올바른 관점은 단순합니다 —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약 18개월 후에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는 것입니다. 이 12~18개월 시차야말로 자산 가치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닷컴 버블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M2

미국·EU·일본·중국 주요 4개국의 M2 통화량 총합 추이는 명확합니다. 1995년 14조 달러 → 1998년 14조 → 2007년 30조 → 2014년 52조 → 2022년 85조 → 2025년 95조 달러. **30년에 약 7배**입니다. M2는 본래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인류는 항상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돈을 찍어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연준은 양적완화(QE)라는 신무기를 도입해 본원통화(M0)를 직접 찍어냈고, 신용 경색 여부와 관계없이 M2가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작용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했고, 연준이 QE 신호를 보내면 2~3주 안에 주식이 매수되는 패턴이 자리잡았습니다. 2008·2009년 반토막 났던 미국 주가는 막대한 유동성 공급 덕분에 1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15년의 QE 시대가 끝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미국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9% 돌파로 잊혀졌던 '긴축'이 다시 등장했고, 2022년부터 한국 부동산도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023~2024년 독자적으로 막대한 통화를 공급했고, 한국 M2는 +21%(구 기준), 강남 아파트 공급은 +2%였습니다. **돈이 21배 더 풀렸는데 공급은 2%만 늘었으니 강남 부동산이 약 2배 폭등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공급량이 아니라 통화량(유동성)입니다.

새 돈은 자산가가 먼저 받고, 서민이 가장 나중에 받습니다

이를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캔틸런이 발견했고, '깡띠용 효과(캔틸런 효과)'로 불립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면 그 돈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유층이 자산을 매입한 뒤 가격이 오릅니다. 그 후에야 서민에게 대출 기회가 돌아오고, 이미 오른 가격에 자산을 사야 합니다. **시차의 노예가 되어 꼭짓점에서 자산을 매입한 후 시장 붕괴 시 자산을 잃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이 점점 가난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미국 사례가 명확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부유층은 신용 경색기였던 2001~2002년에 저렴하게 대출받아 부동산 가격이 매우 낮았을 때 집을 사두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30% 하락에도 2001년 가격 대비 여전히 2~3배 오른 상태로 큰 타격을 피했습니다. 반면 서민은 2005년 부시 대통령의 "서민도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대출 프로그램으로 2006~2007년 부동산 가격의 마지막 불꽃에 매수했고, 2008년 붕괴와 함께 막대한 자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막차에 탄 서민**이었습니다.

이 캔틸런 효과의 누적이 만든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990년대 클린턴 시절 미국 하위 90%가 전체 자산의 40%를 소유했고, 상위 1%는 22%였습니다. 부가 비교적 고르게 분배된 시기였기에 모두가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경기 침체마다 막대한 돈을 풀면서 격차는 누적됐고, **2015년 마침내 상위 1%가 소유한 자산이 하위 90%의 자산을 넘어서는 부의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역사상 이와 유사한 부의 역전이 있었던 해는 1927년 단 한 번이었고, 1928년까지 호황이 이어졌지만 결국 1929년 가을 대공황으로 번졌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미 연준의 분기별 가계 자산 분포 데이터(†1)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상위 1%는 미국 전체 가계 자산의 31.7%, 약 55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 90% 전체가 보유한 자산과 사실상 동등한 수준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자산 구성의 갈라짐입니다 — 상위 1%는 주식과 뮤추얼펀드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지만, 하위 90%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본 회차 후반부에서 다룰 비트코인 vs 금의 자산 시장 차별화 메커니즘이 자산 계층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 유동성이 풀릴 때 먼저 받는 사람은 주식·금 같은 유동성 자산을 즉각 매수하고, 부동산에 묶인 사람은 거래 빈도와 시차의 양쪽 측면에서 뒤처집니다.

트럼프 2.0 — 38조 달러 부채와 8배 급등한 장기 금리

바이든 행정부는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선택했고, 미국 국가부채는 11.8조 달러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문제적인 정책 — 대규모 감세를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20년 7월 0.5%에서 4.1%까지 약 8배 급등했고, 연준이 2024년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음에도 10년물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국채를 사려는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탓입니다. 5~10년 만기 회사채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 4%대 장기 금리는 투자 결정을 막는 부담이고, 실제 미국 전체 기업 투자는 5% 감소했습니다(AI 분야는 +30% 예외).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수단 (1) — 단기채 위주 발행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세 가지 마지막 수단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채 위주 국채 발행**입니다. 본래 미국 재무부 준칙은 장기채 80% / 단기채 20%였지만,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이를 깨고 단기채 55% / 장기채 45%로 발표했습니다(일부 분석은 단기채 80% 주장). 장기채를 대량 발행하면 수요 부족으로 금리가 오히려 상승해 기업 투자 부담이 가중되니, 장기채 발행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단기채로 집중한 것입니다.

이 정책의 부작용은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 고갈로 즉각 나타났고, 그 신호가 자산 시장에서 갈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은 30% 하락한 후 한동안 회복하지 못했고, 금값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금융시장 자금으로 움직이고, 금은 중장기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 비트코인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단기 유동성의 풍부 여부를 가리키는 가장 빠른 선행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면 단기 유동성이 풀려 주식 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정체되어 있다면 주식의 폭발적 상승이 어렵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수단 (2) — 동맹국 자금 활용

두 번째 수단은 **동맹국 자금 활용**입니다. 관세 폭탄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 하지만 관세 수입은 전체 세수 부족분의 1/10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관세 정책이 대법원 판결 등 변수에 부딪혀 실패하면 미국의 세수 확보 방안은 더욱 불투명해집니다.

사실상의 강제 투자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국·일본·EU 등 동맹국들에 미국 내 투자를 강력 요구하지만, 대부분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입니다. 트럼프 임기가 2년 미만 남은 상황이라 동맹국들은 이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외 자금 유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투자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이는 2026~2027년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수단 (3) — 유사 양적완화 재개

세 번째 수단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2025년 12월** — 트럼프 정부의 단기채 발행이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흡수하자 파월 의장은 불가피하게 단기채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파월은 "단기채 매입일 뿐 양적완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활동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지원하는 양적완화입니다. **이 '2025년 12월'이라는 시점은 12~18개월 인플레이션 시차의 출발점**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진행 속도는 외부 자료로도 확인됩니다(†2). 연준의 Reserve Management Purchases(RMP) 시작 후 약 4개월 동안 연준 대차대조표는 약 2,000억 달러 확장됐고, 2026년 한 해 RMP 추정 규모는 약 5,400억 달러(MBS paydown 합산)에 이릅니다. 12~18개월 시차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 2027년 후반의 인플레이션 역습 시점은 이 12월에 점화된 폭발물의 도화선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결합되면 미국에는 유동성 홍수가 발생하고, 이는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발합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로 조심스럽게 줄타기를 하고 있고, 후임자가 이 정도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가 섣불리 돈을 대규모로 풀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까지 상승시킬 수 있겠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것이고, 반대로 단기 자금 공급을 못 하면 미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 + 1972년 닉슨/번즈 평행이론

미국 중간선거(2026-11)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권자에게 "살림이 나아졌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무조건 돈 풀기입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1972년 아서 번즈 연준 의장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기준금리를 1970년 9%에서 1972년 3%대까지 대폭 인하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971년 +14.3%, 1972년 +19% 급등했고, 닉슨은 선거인단 520대 17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제가 좋아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역습은 어김없이 12~18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1972년 3.2%로 통제되는 것 같았던 인플레이션율은 1973년 8.7%, 1974년 12.3%로 치솟았고, S&P 500은 1973년 -15%, 1974년 -26%라는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호황 후 폭락. 평행이론입니다.

2026년의 트럼프는 닉슨 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 자산도 이미 2기 취임 전 39억 달러에서 2025년 말 73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 금리 인하와 통화 팽창이 자산 가치 상승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학습한 셈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1972년의 닉슨과 똑같은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압박은 닉슨보다 더 구조적입니다. 2026년 4~5월 사이 트럼프는 **파월의 5월 15일 임기 만료 후 자리 유지 시 해고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Lisa Cook 연준 이사를 모기지 사기 혐의로 해임하려는 시도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3). 즉 단순한 정책 압박이 아니라 인사 통제로 연준 독립성 자체에 도전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29일 FOMC에서 **파월은 마지막 결정으로 기준금리를 3.5~3.75% 동결했습니다(3차 연속)**.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독립성을 방어한 것입니다. 동시에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PCE는 3월 3.5%로 직전 2월 2.8%에서 급등 — **강사가 제시한 경계 수위 3.5%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새 인플레 변수가 강의 시점(2026-01) 이후 추가됐고, 이는 강사의 시나리오 분석에 충격 변수로 작용합니다.

강사가 본 2026년 세 시나리오

(1) **고용 악화 → 경기 불황** : 역설적으로 주식 시장에는 가장 긍정적입니다. 일시 자산가격 하락 → 연준 명분 확보 → 돈 풀기 → 한두 달 내 반등 → 12~18개월 시차 후 2027년 인플레 도래까지 호황. 가능성 두 번째.

(2) **3% 마일드 인플레이션 + 견조한 미국 경제** :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 + 재정 지출 확장 → 자산 가격 상승 → 연말부터 인플레 압력(상고하저). **강사 의견: 가능성 가장 높음.** 다만 2026-04 시점에 PCE가 이미 3.5%에 도달했고 이란 전쟁 변수까지 추가된 만큼, 이 시나리오의 균형점은 강의 시점보다 좁아져 있습니다.

(3) **상반기 조기 인플레 → 연준 긴축** : 인플레율 4% 돌파 시 트럼프 임명 의장도 긴축 강제. 강의 시점에는 가능성 낮다고 평가됐지만, **PCE 3.5% 도달과 이란 전쟁 인플레 압력으로 가능성이 강의 시점 대비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악 시나리오는 1·2 동시 발생 =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지만, 미국 250년 역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단 10년뿐이라 발생 확률은 낮다고 강사는 분석합니다.

튀르키예 — 살아있는 사례 연구

에르도안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내린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 생산비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생산이 늘어나면 결국 물가가 안정된다는 주장입니다. 대중을 현혹하는 궤변에 가깝지만, 그는 독재적 권력으로 이를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튀르키예 M2 통화량은 2012년 7,400억 리라에서 2025년 22조 2,000억 리라로 30배 급증, 인플레이션은 85%(2022년 10월 정점)에 달했고, 리라화 가치는 2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012년 1.8리라였던 USD/TRY 환율은 2026년 43리라가 됐습니다 — **한국으로 치면 1,300원 환율이 3만 3천 원이 된 셈**입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통화량은 30배 풀렸는데 집값은 14배 오르는 데 그쳤고, 환율은 24배 상승했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자(13.75배) vs 달러 투자자(24배)** — 달러 투자자가 승자였습니다.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상태에서 돈만 풀면 자산 가격 상승률이 통화량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통화 가치 하락만 정직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의 인용 사례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4). 2023년 에르도안은 새 경제팀을 임명하며 무모한 정책에서 정통 정책으로 노선을 전환했고, 튀르키예 중앙은행(CBRT)은 정책금리 인상 → 인하 사이클을 거쳐 2026년 3월 정책금리 37%로 첫 동결했습니다(5번 연속 인하 후). 2026년 인플레 목표는 16%, 중기 목표는 5%입니다. 시장 12개월 인플레 기대는 23.35%로 여전히 높지만, 추세는 안정화 중입니다. **'평행이론'은 정책 동기의 닮음을 가리키지 결과의 자동 반복은 아닙니다.** 트럼프 역시 닉슨·번즈 사례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정확히 같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 수 있다는 nuance — 다만 그 결과는 정책 결정자의 선택과 외부 충격(이란 전쟁 같은)이 동시에 빚어내는 함수입니다.

놀라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논리가 에르도안과 소름 돋게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 물가가 안정된다" + "건설사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공급이 늘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인물의 공통된 동기도 명확합니다 — (1) 본인 보유 자산 가치 상승, (2) 선거 승리. 에르도안은 약 5억 달러의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 환율이 24배 올랐으니 개인적으로 24배의 부자가 된 셈입니다.

미국이 튀르키예보다 더 취약합니다

직관과 반대로, 인플레이션 문제만큼은 패권국가인 미국이 약소국 튀르키예보다 더 취약합니다. 튀르키예는 물가 85% 폭등에도 경제가 완전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리라화 가치 폭락이 수출 경쟁력 + 관광객 유입으로 일부 완충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 물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적 지위 위협**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미 정량으로 진행 중입니다(†5). IMF의 외환보유고 구성 데이터(COFER)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준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약 57%로 1994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1999년 71%에서 1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동시에 중앙은행 금 매입은 2022년 이전 연간 약 500톤에서 그 이후 1,000톤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어 3년 연속 유지되고 있고, 외환보유고에서 금 비중은 2015년 10% 미만에서 현재 23%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구조적 트리거는 2022년 러시아 외환 약 3,000억 달러가 동결된 사건입니다 — 다른 나라 금융 시스템에 보관한 외환은 압류 가능하다는 신호가 전 세계 중앙은행에 전달된 셈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켜야 한다는 숙명 때문에, 에르도안처럼 자국 통화 가치 폭락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징후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즉각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미국 자산 가격의 향방은 인플레이션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의 4단계와 트리거 라인

단계	연 상승률	비고
모더레이트 (Moderate)	연 2~6%	트럼프가 가장 선호하는 구간. 자산 상승률 > 물가 상승률
하이 (High)	연 10% 이상	1970년대 미국에서 3차례 발생
갤로핑 (Galloping)	연 20~50%	주로 개발도상국
하이퍼 (Hyper)	연 50% 이상	튀르키예·아르헨티나 사례

강사의 인플레이션 경계 수위는 3.5%, 위험 수위는 4%입니다. 본래는 2.5%/3%였지만 트럼프의 지속적 압박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3.5%는 모니터링 시점, 4%는 자산 비중 재조정 시점**입니다. 4%를 돌파하는 순간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심리적 충격 + 트럼프 핵심 지지층(서민)의 직접적인 생활고 → 본격 긴축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플레이션의 강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은 항상 실패해 왔습니다. 시차의 존재 때문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돈을 풀어 당장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통화 팽창을 지속하다가, 결국 통제 불능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튀르키예 사례에서 보았듯, 물가는 안정되어 있다가 돈을 풀어 힘이 응축된 후 한꺼번에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차를 역이용하는 지혜

깡띠용 효과의 정점, 즉 모든 사람이 열광할 때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항상 실패로 이어집니다.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시차의 노예가 되어 꼭짓점에서 자산을 매입한 후 시장 붕괴 시 자산을 잃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이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대표 성공 사례 —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진출 시점이 호황이 아닌 미국·일본 반도체 회사들의 줄도산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장비를 매우 저렴하게 확보했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앞으로 AI 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어 엔비디아 칩 수요가 급감한다면, 칩셋 가격은 폭락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AI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과열되고 경제 방송이나 증권 방송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하는 공포(FOMO)가 조장될 때 현혹되어선 안 됩니다. 이 시차를 반대로 활용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2026년, 한국 투자자가 즉시 점검할 세 가지

① **시차를 역이용** —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 유사 QE의 12~18개월 시차를 인지하고, 2026년 자산 상승 기회를 잡되 2027년 후반 인플레 역습에 대비한 출구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꼭짓점 매수는 항상 실패합니다.

② **단기 유동성 바로미터 = 비트코인 모니터링** —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의 선행 지표입니다. 2026년에는 매월 확인하는 필수 지표입니다 — 비트코인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의 풍향계로 활용해야 합니다.

③ **인플레이션 4% 트리거 라인 모니터링** — 강사의 경계 수위 3.5%에 PCE는 이미 도달했습니다(2026-03 기준 3.5%, 직전 2.8%에서 급등). 4% 돌파 시 트럼프 임명 의장도 긴축 강제 — 자산 비중 재조정 시점입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새 변수가 강의 시점에는 없던 인플레 압력을 추가하고 있어 모니터링 시급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낼 유동성 홍수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에 너무 취해 있다가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972년 닉슨이 그랬듯이 호황의 끝에 폭락이 옵니다. **이 회차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 시차를 인식하고, 출구를 미리 준비하라.** 그것이 2027년 인플레 역습의 충격을 1974년 S&P -26%가 아닌 자산 보존의 기회로 바꾸는 길입니다.

ONE LINE

한 줄로 — 시차를 인식하고, 출구를 미리 준비하라.

† 회차 자료 보강 (강의 본문 외부 자료 5종)

본문에 †1~†5로 표시된 자료는 강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외부 출처입니다. 강의 메시지를 시간 연장(2015 부의 역전 → 2025 Q3) 또는 사례 후속(2025-12 유사 QE → 2026-04 진행률, 에르도안 사례 → 2023 노선 전환)으로 확장합니다.

†1 미국 부의 분포 (2025 Q3) — 미 연준 분기별 가계 자산 분포 데이터. 상위 1%의 자산 비중 31.7% / \$55조 ≈ 하위 90% 합. 자산 구성은 상위 1%가 주식·뮤추얼펀드 절반 이상, 하위 90%가 부동산 중심으로 갈라짐. 강의 §8 '2015 부의 역전' 시점에서 10년 후의 모습. 출처: Federal Reserve —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DFA)

†2 연준 RMP 진행률 (2025-12 ~ 2026-04) — 연준 대차대조표 약 +\$200B (4개월). 2026년 RMP 추정 +\$540B (Treasury bills + MBS paydown 합산). 강의 §11-3 '2025-12 유사 양적완화 시작점'의 4개월 진행률. 출처: Wolf Street — Why the Fed's Reserve Management Purchases Are Not QE (functionally is)

†3 트럼프 vs 파월 (2026-04~05 후속) — 4-29 FOMC 금리 3.5~3.75% 동결 (3차 연속, 파월의 마지막 결정). 트럼프 5-15 임기 종료 후 해고 위협 + Lisa Cook 이사 해임 시도. PCE 3월 3.5% 도달(직전 2월 2.8% 급등). 이란 전쟁이 인플레 압력 새 변수로 추가. 출처: Fortune — Powell holds rates steady, defies Trump (April 29, 2026)

†4 튀르키예 노선 전환 (2026-03) — CBRT 정책금리 37% 동결 (5번 연속 인하 후 첫 동결). 2023년 에르도안이 새 경제팀 임명하며 정통 정책으로 노선 전환. 2026년 인플레 목표 16% / 중기 5%. 시장 12개월 인플레 기대 23.35%. 강의 §13~14 에르도안 평행이론에 nuance — 강의 인용 시점 이후 정책이 변하고 있음. 출처: Türkiye Today — Turkish central bank unveils 2026 monetary policy calendar (5% inflation target)

†5 외환보유고 탈달러 (2025 Q4) — IMF COFER 기준 글로벌 외환보유고 달러 비중 57% (1994 이래 최저, 1999년 71% 대비 -14%p). 중앙은행 금 매입 1,000톤+/년 (3년 연속, 2022년 이전 ~500톤/년 대비 2배). 외환보유고 금 비중 2015년 <10% → 23%+ (2배 이상). 구조적 트리거: 2022년 러시아 외환 \$3,000억 동결. 출처: IMF — COFER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지표 출처: federalreserve.gov · cbsnews.com · wolfstreet.com · data.imf.org · gold.org · fortune.com · turkiyetoday.com